

저 패륜, 먹는 걸로 장난쳐? 불우이웃 돕자고?

못된 정치 껌껌한 속셈이 ‘과학’을 주물럭 거리는 꼴, 요즘 국제정치학이다.

핵발전소가 폭발했다. ‘과학적으로’ 매만지니 오염수 1리터쯤은 마셔도 별 탈 없단다.

그 과학은 서양문명의 ‘정치’인가? 씹수없는 과학, 그대 드시게. 과학이 무엇에 입맛을 다시나?

말(언어)도 ‘과학적으로’ 마사지했다. ‘처리수’라니 애무(愛撫) 수준일세. ‘안전하다.’는 장본인들의 창작이다. ‘안전하면 자네들이 마시게나.’는 취지 중국 당국의 언급, 간명하고 적절하다. 섬이어도 그들 강산과 들관, 유유(悠悠)하더라. 부사산(富士山) 꼭대기나 상근(箱根) 온천지 호젓한 호수에 담아 오래 마시면 그 ‘안전함’과 책임감에 지구촌이 갈채 보낼 터.

복합오염이란 말은 그런 과학 판치는 서양 문명에서 더 오래된 상식이다. ‘안전하다’ 강변하기 위한 의도의 실형이나 검사(檢査)의 실속, 세상이 안다. ‘과학적’ 간판 걸고 ‘논’ 가리고 ‘아웅’이면 만사 오케이? 번서면 수사? 범치주의?

그 과학 말고 ‘진짜 과학’으로 보자.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놈’으로 시작하는 말의 다 음은 입을 열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하다. 패

■ 강상헌의 심우도



언어철학자 · 언론인

륜(悖論)이다. 지들도 속으로 그리 생각할 것이다. 중국의 언급 또한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라. 그 생선, 다른 나라에도 팔겠단다. 누가 먹어?

긴 파이프 바다로 내려 먼 태평양 바닥에 흘려보내겠다는 것이니, 해류에 천천히 희석(稀釋)되리라고? ‘희석’은 농약 뿌리려고 물을 섞는 것 같은 방식이다.

안전한 처리수, 걱정 말라고? 그래서 하는 말일세. 한걸음 물러나 다시 생각하라, 인두 겁 쓰고서 할 말인가.

자기 돈 안 쓰려고 핵 오염수로 세상을 위협에 빠뜨린다나.

‘남에게 패를 끼치고 죽으라’는 자폭일까? 삼도유기부(三島由紀夫)의 활북(1970년)을 상정할인지. 그게 그 무리의 길인가. 사린가스

동경 지하철 참사의 기억(1995년) 새롭다.

그들 살림의 우하향(右下向) 사정을 알기에 그들의 과장된 몸짓에 측은지심마저 느낀다.

사실상 욕일가라고 지들이 떠벌이는 그 ‘깃발’ 매고 몇 척 군함 들어와도 실은 그리 신경 안 쓴다. 이제 전쟁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듯 몸살 하는 신군국주의, 좀 성가시긴 하다.

가난은 나라님도 어찌지 못한다는데, 오염수 파이프질로 바다의 순결(純潔)을 짓밟는 건 돈이 없어지겠다.

이웃도 수궁할 씹수 있는 바른 핵물질 해결책을 (비용 때문에) 마다하는 것이다. 불우 이웃이니 도와야 하겠다. 도리다.

밟고도 방지하면 씹어 문드러지는 병으로 악취 풍기며 가라앉을 수도 있을 테니, 가까운 이웃들이 먼저 나서자. 태평양 건너 나라(들)에도 자선(慈善)의 기회를 주자. ‘과학적 말장난’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

핵발전소, (터지면) 나라도 세상이 다 뒤집힐 만큼 위험하구나. 그 답터기는 후손이 뒤집어쓰는 것이니 내가 알게 뭐냐. 그런가? 우선 먹기는 곳감이 달다고? 하지만, 일은 바탕을 보자.

사설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형 보수 프레임 구축

야당은 지배적 담론에 맞서는 대항 프레임을 제시하라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자유”다. 문제는 이 자유가 어떤 의미로 해석되고, 국정운영으로 나타나느냐에 있다. 지난 1년간은 총론에 기반해 행정조직개편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단계였다. 첫 인사는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사정기관, 주요 정부 부처 요직에 온통 검찰 출신들을 배치했다. 이렇게 특정세력이 과잉 대표될 경우 여타세력의 자유는 축소되어 대의제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각계각층의 국민을 대변하는 대리인들이 끌어가기 하기 때문이다.

정권 출범초기 검찰조직 강화에 이어 지난 3월 노동, 교육, 연금 3대개혁 과제와 공무원 개혁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와 인력보강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제 각론 단계에 접어드는 국면이다.

대외관계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주요 기조다. 과거사 갈등을 봉합(?)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도 일본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 큰 틀에서 한미일 안보동맹 구축을 향해 질주하는 모양새다. 주요교역 파트너였던 인접국 중국과 러시아에는 사실상 적대국가에 가까운 대접을 받고 있다. 불균형 외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대통령의 내치와 외치를 합친 메시지에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큰 프레임 아래 대북 제재 지속, 부동산과 기업 규제완화, 불법사위 중단, 노동개혁, 공직사회 성과주의 도입, 복지의 시장화 등 하위프레임이 쏟아져 나온다. 비타협적이고 일관성 있는 프레임 구축이 이뤄지고 있다. 프레임이 중첩되어 쌓이면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된다.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어진다.

제도 변화가 성공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국회동의를 일사불란한 행정조직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여소야대라는 큰 장벽을 대화와 타협 방식보다는 검경수사기관 압박, 거부권 행사, 대통령령과 시행령 등으로 돌파하려 한다. 합법적이지는 모르나 비민주적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국민여론 수렴과정이 생략된 독주이기 때문이다. 행정조직이 뜻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부패보다 나쁜 부처이 기증’으로 매도된다. 집권세력은 선이고, 저항세력은 악이다. 야당, 불법사위 하는 민노총과 장애인단체, 미작거리라는 관료조직 등이 그러하다.

이런 과정에서 야당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쏟아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담론에 맞서는 프레임을 생산하고 있는가? 남북문제 대중관계 복지문제 등 여러 쟁점 이슈에서 민주당은 집권여당과 다른 입장을 취해왔는데 프레임으로 만들어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의 가치와 맞는 정책대결을 펼치거나 기대한다.

강고해지는 보수적 지배 담론에 맞서는 대항 담론을 만들지 못한다면 건강한 정책 토론이 이루어질 수 없고, 자칫하면 소수 집권엘리트 집단이 국가의 명운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치열한 정책대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을 표방한다면 크레인 농성에서 피 흘리는 노동자와 절규하는 장애인, 노인빈곤층, 물가상승과 빈부격차 심화로 고통 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안적 프레임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인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민생을 보살피는 일이기 때문이다.

경기신문
www.kgnews.co.kr

제2창간 2022년 8월 26일
첫 발행 2002년 6월 15일

문화 가-00224(일간) ISSN 2635-978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발행·편집인 는 설 주 간	김 대 훈 심 흥 식	인 쇄 인 편 집 국 장	박 장 희 고 영 규	인 천 본 사 사 장 인천편집국장장직대	이 한 성 정 민 교
본사 : ☎ 16949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대표전화 : 031-268-8114	수원본사 : ☎ 16702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대표전화 : 031-268-8645	인천본사 : ☎ 21559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대표전화 : 032-442-8114			
광고문의 : 전화 031-268-8330 팩스 031-268-8393 구독신청 : 전화 031-268-8335 구 독 료 : 월 15,000원 · 부 : 1,000원	독자들의 솔직하고 담백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보내주시 원고는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31-257-4459 / 팩스 031-268-8393 / e-mail opinion@kgnews.co.kr				
※ 외부 기고는 경기신문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친환경 다문화 한가족 축제로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유난히 맑고 푸르른 5월의 하늘아래 다문화 한가족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야외 음악당 푸른 잔디위에는 인도, 네팔, 스리랑카 등 전통의상을 예쁘게 차려 입은 아이들이 비눗방울들을 뿜어내고, 하얀 몽골부스에서는 각 나라의 음식들이 봄비게 서빙되고 있고 다양한 체험 행사들이 시행되는 모습을 보며 모처럼 코로나에서 벗어난 축제의 현장들이 생동감 있게 느껴졌다.

수원시는 외국인 주민이 6만5000여 명으로 전국에서 2위로 많으며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는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이다.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및 취업교육, 다문화 가족 동아리 모임, 다문화 서포터즈 운영, 다누리꾼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더 나아가 찾아가는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사업 등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이 함께 누리는 포용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들의 결실이 아닐까 싶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다문화 한가족 축제는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며 다문화가 가진 풍요로운 다양성이 ‘다름의 편견’을 허물고 소

■ 기고



조남철
수원시 다문화정책과장

통의 장을 열어내며 우리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뜻깊은 행사이다. 축제는 기획단계부터 외국인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베트남EPS사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여성문화공간-휴, 수원YWCA,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며 준비했다.

식전행사로 길놀이 퍼레이드, 세계전통의상 패션쇼 그리고 기념식에 이어 2023년을 상징하는 2023인본의 룰케이크 나눔 행사가 시선을 끌었는데, 오색룰케이크 나눔행사에서 일회용 컵, 접시 대신 접시행위기(먹는 접시)를

사용하여 폐기물 양을 줄이고 환경에 대한 책임을 실천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수원시가 친환경적인 선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제 개최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5000명이 넘는 외국인주민과 수원시민들이 지나간 축제의 마당은 또 어떠했을까. 행사도 시끌벅적했고 42개 부스중에 1/3이 음식부스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끝난 야외음악당에는 쓰레기 하나 볼 수 없이 말끔하게 정돈되었다. 자기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고 자원봉사자들이 행여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청소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하루의 축제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은 길었지만 모두가 기쁘게 참여하고 환경을 실천하고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 안정된 사회의 기틀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끼며 다문화 한가족 축제의 담당부서장으로서 축제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또 함께 어우러져서 즐겁게 참여하여 축제를 빛나게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을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해물

가득

통통우동

보이

전자레인지 6분OK

대원찬

MAKE A FOOD CULTURE

해물 가득 통통우동

340g (1인분)

해물 가득 통통우동

340g (1인분)

해물 가득 통통우동

340g (1인분)

주식회사

신도리코

대표전화 (031) 247-1372~3

H.P 010-7383-1372

영업안내

- 컬러 디지털 복사기[임대·판매·A/S]
- 3D 프린트 판매
- 전산소모품

디지털 복사기 임대·판매

유지보수

서비스 전문업체